

# 추모예배 안내



17 What he toiled for he must give back; he will not enjoy the profit from his trading.  
18 For he has oppressed the poor and has seized houses; he did not crave; surely he will have no respite from his craving.  
19 He cannot save himself by his greatness; his prosperity will not endure.  
20 In the midst of his plenty, disaster will overtake him; the full force of misery will come upon him.  
21 When he has filled his belly, God will vent his burning anger against him.  
22 And rain down his blows upon him; a bronze-tipped arrow will pierce him; he pulls it out of his back.  
23 Terrors will come over him; total darkness lies in wait for his treasures.  
24 A fire unfanned will consume him, and devour what is left in his tent.  
25 The heavens will expose his iniquity; a flood will carry off his stronghold, rushing waters on the day of his fall.  
26 Such is the fate God appoints for the heathen appointed to destruction.  
  
Job 21:17-24  
17 Let this be the consolation I bear with me while I speak, and after I have spoken let my complaint direct me.  
18 Look at me and be astonished, and when I cry and wail, do not listen.  
19 When I weep, do not trouble me, and when I cry, do not answer me.  
20 Before me is the way of death, and my path is darkness.  
21 I have heard of you, O God, and I am terrified; I have heard of you, O God, and I am afraid.  
22 I have heard of you, O God, and I am terrified; I have heard of you, O God, and I am afraid.  
23 I have heard of you, O God, and I am terrified; I have heard of you, O God, and I am afraid.  
24 I have heard of you, O God, and I am terrified; I have heard of you, O God, and I am afraid.

24 They sing to the music of tambourine and harp.  
25 They make merry to the sound of the flute.  
26 They spend their years in prosperity and go down to the graves in peace.  
27 They say to God, "Leave us alone; we have no desire to know your ways, O God, the Almighty, that we should see who is like you."  
28 What would we gain by praying to him? Who would we gain by praying to him? What would we gain by praying to him? What would we gain by praying to him?  
29 Yet how often is the lamp of the wicked snuffed out?  
30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1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2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3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4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5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6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7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8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39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40 How often do they come to grief and die?

Job 21:25-36  
25 and watch as they cover his home.  
26 The soil in the grave they sow to him, and a country where they sow before him.  
27 So how can you console me with your words? Nothing is left of your answers but falsehood!  
28 Then Eliphaz the Temanite replied:  
29 "Can a man be of benefit to God? Can even a wise man benefit him? What pleasure would it give the Almighty if you were righteous? What would he gain if your ways were blameless?"  
30 "Is it for your piety that he rebukes you and brings charges against you? Is your wickedness great? Are your sins endless? Do you strip men of their clothing, leaving them naked? Do you withhold food from the hungry, though you were a powerful man, owning land—  
31 an honored man, living on it—  
32 and you sent widows away empty-handed and broke the strength of the fatherless, why sudden peril terrifies you, and why a flood of water covers you?  
33 Is not God in the heights of heaven? And see how lofty are the highest,  
34 yet you say, 'What does God know? Does he judge through such darkness?'  
35 Thick clouds veil him, so he does not see as he goes about in the vaulted heavens."  
36 "Will you keep to the old path, that evil men have trod? They were carried off before their foundations washed away.  
37 They said to God, 'Leave us alone; what can the Almighty do to us?' Yet it was he who filled their houses with good things, so I stand aloof from the wicked.  
38 The righteous see their ruin, and the innocent mock them.  
39 Surely our foes are destroyers, and fire devours their dwellings."





## 추모예배안내 목차

### 추모예배 모범안

대표 기도문의 예1	3
대표 기도문의 예2	4
설교 관련 지침	5
찬송 관련 지침	6
추모사 관련 지침	7

### 추모예배 지침

추모예배의 목적과 의의	8
추모예배의 준비	10
주의사항	11

## 추모예배 모범안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경봉독 ..... 시편 37:3~6 (구약 828면) .....	사 회 자
설 교 .....	담 당 자
찬 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559장) ...	다 함 께
추 모 사 .....	가족대표
주기도문 .....	다 함 께

### 대표 기도문의 예1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의 ○주년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추모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먼저 홀로되신 어머니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허전함이나 외로움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믿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 있는 동안 부지런히 주님을 섬김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의 못다한 업적을 이어 나아가게 하시고 귀한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더욱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추모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대표 기도문의 예2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일로 모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열심히 살지 못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못했던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홀로 계신 아버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여 효도하는 자손들 되게 하시고, 형제끼리는 더욱 우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온 가족이 고인의 죽음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설교 관련 지침

1. 설교자는 가족 중 신앙의 연장자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본문은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말씀이나 다음의 추천 본문들 중 하나를 택하시면 무난합니다.

- 창 12:1-4 : 복의 근원되는 믿음의 가문
- 수 1:2-6 : 담대한 믿음의 길
- 시 1편 : 참으로 복된 가정
- 시 23편 :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신 하나님
- 전 12:1-8 :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 고후 5:1-3 :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
- 엡 6:1-4 :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의 모습
- 살전 5:1-11 :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
- 딤후 1:3-5 : 믿음의 유산대로 사는 삶
- 벧전 4:7-8 :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

## 찬송 관련 지침

---

1.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두가 잘 아는 찬송을 선택하되 다음의 찬송들을 추천합니다.

- 새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새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 새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 새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새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새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새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새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새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 새찬송가 611, 612, 613장 <추모 찬송들>

## 추모사 관련 지침

---

1. 추모사는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누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2. 가족대표 한 사람, 또는 대표 몇 명이 이야기해도 좋고,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돌아가며 한 마디씩 나누어도 좋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3. 추모사는 사전에 원고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모\*예배 지침



## 추모예배의 목적과 의의

### 1) 우리의 예배는 고인의 운명이나 사후 거취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추모예배는 고인의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인을 기억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짐의 시간입니다.

### 2) 올바른 생사관(生死觀)을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생사관의 관점에서 보면, 남아 있는 자들의 행동이 고인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고인의 뜻이 이승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생사관으로 볼 때, 죽은 자들의 세상과 살아 있는 자들의 세상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눅 16:19-31).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도(追悼)'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한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인(故人)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은 이를 생각할 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추모(追慕)'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이를 그리며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고인과의 잠깐 동안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슬퍼하기 보다는 고인을 그리워하고 재회(再會)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도'보다는 '추모'라는 용어를 권장합니다.

### 3) 부활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상례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뿐이요, 그 의식을 통해서 위로받을 어떤 내용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추모예배는 부활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에 따라 복음적 소망을 가지는 기회가 됩니다. 추모예배를 통해 신앙 안에서 부활신앙과 영생의 소망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야 합니다.

### 4) 감사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상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인을 기리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 5)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입니다.

추모예배를 계기로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 사랑과 정을 확인하면서 가족적 유대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 결속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사와는 달리 직계가족을 넘어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친교의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추모예배의 준비

### 1) 예배 시간

추모일에 맞추어 하는 것이 좋으나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에 좋은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정하면 됩니다. 단, 주일예배 시간은 피하여 공예배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참석 대상

추모예배의 참석대상은 전통제사와는 달리 직계자손과 친척이라는 가족공동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 3) 집례자

가족 중 신앙의 연장자가 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4) 기타 준비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 육성 녹음, 고인이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가 등 고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유품들이 있다면 준비해도 좋습니다.

## 주의사항

### 1) 추모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인의 삶과 유훈(遺訓)을 되돌아보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도록 서로 다짐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 2) 사진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고인의 사진이나 화분 정도의 장식으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음식은 예배 전에 차려놓기 보다는 예배 후에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시간을 제사처럼 밤늦게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만일 불신가족으로 불신자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서 추모예배가 어려울 경우,

그 의도가 순수하다면 당분간은 유연한 태도로서 양해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유익이 됩니다.

### 4) 불신자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교회전통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예식이 끝나는 뒤로 미루도록 합니다.

## 5) 예배의 대상은 고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추모예배는 고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 추모예배 안내

---

2016년 9월 1일 인쇄  
2016년 9월 1일 발행

**기획·편집** 장성호  
**디자인** 디자인구오 kakao ID:@design95  
**퍼낸이** 이관형  
**퍼낸곳** 내일플러스

**홈페이지** [www.naeil.kr](http://www.naeil.kr)  
**주소** (우)42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212 (장동)  
**전화** 053) 587-2121  
**팩스** 053) 587-2124

